

한국군은 세계평화도 방위

미국 「타임」 지와의 회견

1981년 4월 14일

▲민정당의 승리에 대하여 : 본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압도적인 신뢰를 획득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회고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숙정에 대하여 : 과거에는 정치를 둘러싸고 부정·부패와 연관된 정치인들이 많았다. 정치적 근대화에 역행하는 소요를 조장하고 선동하는가 하면 폭력을 옹호함으로써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도 과거의 정치풍토를 쇄신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숙정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들(과거의 정치인들)은 비정치적인 활동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정치적 활동에만 참여치 못하고 있다. 귀하가 일반론을 논하신다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본인도 찬성한다.

▲통일논의를 위해 북한의 김일성을 초청한 데 대하여 : 본인의 제안은 대화를 위한 무조건적 제의다. 어떤 희망적인 징후가 있어서 이같은 제의를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북측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와 맹방들은 상당한 댓가를 치르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김일성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6·25를 경험했으며 그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 만약 그가 사망한다면 그의 아들이 정권을 승계할 것인데 그런 경우 우리는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며, 전쟁의 두려움도 모르는 인물을 대하게 된다.

구체적 증거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도발행위는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므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타할 수만은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우리를 호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김일성 이외의 어떠한 인물과도 만나는 일은 무익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그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우선은 비교적 손쉬운 문제들을 논하여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점차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자.

우리는 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인내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평화를 더욱 확실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김일성이 더 이상 본인의 제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세계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독일식 통일방안의 전망에 대하여 : 북한과 동독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공산주의국가에서도 개인승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북한의 김일성은 거의 신격화되고 있다. 동독과 여타의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은 바뀌었지만 북한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번도 바뀐 일이 없다.

이러한 특수성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만약 귀하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면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특수한 것인가는 자명해질 것이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나 모택동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해 놓고 과연 무사할 수 있겠는가?』

▲아시아 안보와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 우리는 주한미군과 함께 동북아 뿐만 아니라 넓게는 세계평화도 방위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미국은 그 동안 자유세계의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오늘날은 혼자서 그 역할을 해낼 수는 없다. 일본은 더 많은 기여를 해서 미국이 방위부담을 덜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해양의 자유항행을 유지하고 방공체제의 구축에도 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전략은 팽창주의다. 이같은 소련의 전략은 태평양연안국가들에 중대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 소련의 해·공군력 증강은 중공의 고립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의 고립까지도 획책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념이 다른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가 우리에게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적·물적 교류를 할 용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공을 설득하여 한국과 교역을 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을 승인토록하며 대한민국을 유엔에 가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승인해도 무방하다.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 본인은 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은 배제할 것이며, 물가안정에 근거한 안정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80년대에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본인은 이 목표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열성적이며 헌신적인 근로자들이 있다.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 개인적으로 본인은 결코 권력을 원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하늘이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들 한다. 이 말은 권력과 권위에는 신의 섭리가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권력이 존재한다고들해서 그 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보다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본인이 권력을 보는 입장이다.

또 직책이 무엇이든간에 중요한 것은 존경까지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기의 동료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일이다. 나의 철학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극단을 피한다는 것이다.